

# 주간기도정보

2025. 10. 7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잊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가족과 사회, 분열 넘어 공동체적 연대로 나아가야”

샬롬나비, 2025년 추석 명절 논평 발표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일 2025년 추석 명절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추석은 핵가족화로 파편화된 현대 사회의 고립성을 극복하는 공동체적 연대와 화합의 장”이라며, 명절을 통해 가족·이웃·해외 동포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으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풍년을 감사하는 전통 명절이다. 음력 8월 15일 보름달에 맞이하는 날로 ‘한가위’라고도 하며, 신라 시대의 길쌈 경쟁인 가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샬롬나비는 “추석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샬롬나비는 명절의 본래 의미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화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예로부터 추석은 조상에게 성묘하며 가족과 친지가 교제하는 시간이었고, 마을 전체가 모여 놀이와 잔치를 즐기며 공동체적 연대를 다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추석은 가족과 친족이 다시 만나 유대감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이며, 사회적 단절이 심화된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석이 서로를 직접 마주하며 공감과 배려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 감정 교류는 약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세대는 대면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샬롬나비는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논평은 한국 사회의 분열 문제도 지적했다. 정치적 이념과 세대 갈등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도 대화가 어려워진 현실을 언급하며, 추석이 갈등을 완화하는 대화와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서로의 다른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때 사회 전체로 화해의 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또한 “성경이 가르친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신앙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 사람들이 온라인 중심의 삶 속에서 교회의 모임이 약화되고 있지만, 추석을 계기로 공동체적 신앙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주의 확산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도시화,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의존은 공동체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추석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식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주민은 분명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과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 뿐리내린 고려인 공동체와, 전 세계 7백만 명이 넘는 디아스포라 민족 공동체를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류 확산을 해외 동포와 한국을 잊는 구심점으로 삼아 세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베드로전서 1:21)**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맘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신명기 26:10-11)**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가족과 친족의 유대감을 잃어가고 단절이 심화된 한국 사회에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생명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시류에 얹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복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가정마다 예수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나그네들과 북한 동포,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한 주님, 한 성경, 한 성령, 한 믿음으로 하늘 가족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 속히 이뤄주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북한, 핵무기 생산 협의회 개최… 국제사회 우려 증대  
AI 기반 무인기 공군 편제화에도 속력…연구와 실전훈련 병행**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 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며 핵 무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안보를 넘어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이 전날 핵무기연구소와 관련 분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물질 생산과 핵무기 제조에 관한 중요 협의회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한 힘에 의한 평화 유지와 안전 보장은 우리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의 핵 대응 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안전 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주권과 발전권을 지킬 수 있는 핵 방패와 검을 부단히 벼리고 간신히 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가 핵기술 발전을 위해 모든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핵기술 분야 전문가들에게 당의 핵 역량 강화 노선을 깊이 인식하고, 연구 성과와 생산 실적으로 다가오는 제9차 당 대회를 맞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의 자위적 핵 능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에서는 2025년도 핵물질 생산 능력 확장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연구소의 최근 사업과 주요 생산 활동을 직접 파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중대 전략 과업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핵 능력 고도화의 주요 고리들이 풀렸다”며 큰 만족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력 강화 발언과 행보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된다. 이는 북한은 핵을 다른 나라와 같이 ‘방어용’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1인 독재 체제로 통제가 불확실해 실수나 오판 위험도 커, 핵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한편,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와 병행해 무인 전력 강화 움직임도 가속하고 있다. 북한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당중 양군사위원회는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 연구진을 공군 전단과 비행장 두 곳에 1년간 상시 배치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기존처럼 기술 지원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진이 공군 부대에 직접 침식하며 자율비행, 목표탐지, 회피장치 등 AI 기반 무인기 핵심 기술을 실전훈련과 연계해 개발하도록 한 것이다.

무인기의 기술적 완성도는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게 내부 평가다. 그럼에도 북한은 무인기 전력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한 소식통은 “완벽한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운용 경험 축적”이라고 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명령을 공군력 현대화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사기 진작에 활용하는 분위기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갈라디아서 4:7-8)**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호세아 13:3-4)**

하나님, 국제사회의 어떠한 제재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무력 강화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어리석음과 무력한 권위를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위정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아침 이슬과 같이 쉬 사라지는 연기와 같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탄의 종노릇 하던 인생을 십자가 복음으로 끝내시고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추수의 때가 와도 열매에 대한 기쁨 없이 하루하루를 짚주림과 가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심기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북한 되게 하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다”**

**찬양 중심 예배, 10·20대 신앙 회복의 열쇠로**

**교회학교 회복률 74%…설교보다 찬양 선택한 Z세대**



찬양 중심 예배문화인 ‘K워십’이 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K워십은 설교 중심의 전통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찬양을 통해 신앙을 체험하는 새 문화를 의미한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에게 이런 찬양문화는 신앙 회복의 핵심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한기청)이 지난해 2월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는 기독 청년들의 문화 콘텐츠 소비 패턴을 보여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는 유튜브(47%)였으며 그 뒤를 예배 실황·오프라인 집회(33%)가 이었다. 한기청 조사 결과 기독 청년이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 중 찬양(56%)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소장 지용근)가 지난 22일 발표한 ‘한국교회 주요 지표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2023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 예배 역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주일 현장예배 참석률과 견줘 올해 한국교회 성인 예배 회복률은 91%로 파악됐다.

그러나 교회학교 회복률은 성인 예배 회복률보다 낮아 올해 74%를 기록했으며, 김진양 목데연 부대표는 “교회학교 회복이 더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다음세대 예배 회복의 대안으로 교회 내 또래와의 교제와 찬양이 주목되는데,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은 친구·선후배 교제(30%)와 찬양(28%)을 가장 기대하며, 설교(14%)와 기도(11%)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교회학교 교육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설교나 성경공부 중심의 프로그램보다 또래와의 교제와 찬양을 통한 체험적 신앙 형성이 Z세대에게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김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지예(18)양은 지난해부터 학교 내 기도 모임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코로나를 겪으며 예배가 낯설어지고 교회에서 위축된 경험이 있었지만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며 “유명한 찬양팀이 아니어도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찬양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고 신앙을 형성하는 흐름은 특히 10·20대에서 두드러진다. 이처럼 찬양이 Z세대의 신앙 회복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교회들의 예배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윤영훈 성결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게는 함께 모여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적 코드가 됐다”며 “콘서트나 페스티벌처럼 찬양 중심의 집단 체험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예배는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는 ‘강단 중심’ 구조였지만, 지금 세대는 찬양과 참여를 통해 신앙을 체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회중 중심’ 예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비파야, 수금아, 깔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 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시편 108: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복음 4:23-24)**

하나님, 코로나19로 무너진 교회학교와 중고등학생들의 신앙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며, 단순한 음악적 즐거움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세대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새벽을 깨우는 참된 믿음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십자가 복음 앞에 세우사 거듭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주님, 다음세대가 찬양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다음세대가 온 열방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선교 완성의 그 날을 꿈꾸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